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연구: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최연혁

차 례

1. 서론
2. 논문의 구성
3. 스웨덴의 정당 제도
4. 연구가설
5. 토론

1. 서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정당들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관점의 하나로 정당들이 지지 사회세력의 사회적 대표성 (social representation)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 내에서 임기중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Brothén 1997; Choe 2003; Westerståhl & Johansson 1981; Phillips 1995: 44; Wängnerud 2000). 이 같은 연구의 주된 내용은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이 투표를 통해 적극적

으로 지지를 표명한 사회세력의 대변자로서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Moscovici 1988: 221쪽; Höijer 2011). 이렇게 함으로써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도 담겨져 있다 (Keeman 2002: 68-69쪽; Esaiasson & Holmberg 1996: 279).

의회 정당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의 또 다른 관심은 다음 선거를 위해 전략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야당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Saalfeld 2000: 355쪽; Strøm, Müller & Smith 2010: 518쪽).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에 관계없이 이 같은 가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1인 중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설득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기보다는 인물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의회활동기간동안 소속정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지한 유권자들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관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Choe 2003). 이 같은 제한된 경험적 연구는 선거제도와의 관계, 대통령중심제 혹은 의원내각제, 양원제 혹은 단원제, 양당제 혹은 다당제, 연방국가 혹은 단방국가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들의 의회에서의 행동과 행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복잡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당제 국가인 스웨덴에서 다양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의 행태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한 국가의 정치의 수준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며 국민의 행복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indvall & Rothstein 2010; North 2007; Layard 2006).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할수록 정치적 산출 (political output)도 높아 정치적 효율성 (political effectiveness)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매우 정치가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의 일수록 정치는 투입된 자원에 비해 낮은 정치적 효율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권위적 정부 혹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정치인의 부패, 폭력, 무능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반대로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주의 역사가 길수록 의회정치가 정착되어 있어 야당들의 경우 대정부질문과 서면질문 등을 통한 정부여

당의 견제와 경쟁, 입법안을 통한 정책화, 그리고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활동 등의 정책생산성에 있어서 높다 (Lindvall & Rothstein 2010). 의회에서 폭력이 있을 경우 의회의 질서안정과 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책임지는 의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거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정책대결보다는 대정부 질문을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하거나, 정책 비판보다는 권력비판, 인신공격 등의 행태가 보일 수 있다.

원내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양과 질은 그만큼 정치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척도라 할 수 있다. 의원들의 입안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정책당당의 중요한 역할을 할 때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는 모습은 그만큼 정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는 점이다. 정치가 성숙할 수록 소모적 정치적 논쟁이나 인신공격보다는 정책입안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발할수록 사회적 갈등과 분열현상이 저하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의원의 의회 내에서의 의정활동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스웨덴 각 원내정당 소속의원들이 얼마나 정치적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에 관심을 둔 사례연구이다. 스웨덴의 사례는 종종 상생의 정치, 타협의 정치, 높은 생산성의 정치, 부패가 낮은 정치로 소개될 정도로 북유럽정치의 특징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Larsson & Bäck 2008; Petersson 2010; Arter 2006). 이 연구의 분석은 스웨덴 의회 사무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내정당들의 2006-2010년 의원활동자료를 기초로 한다. 의회자료인 의원활동집을 중심자료로 하고, 스웨덴의 최대 일간지 신문인 다겐스 뉘헤테르 (Dagens nyheter)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의원활동에 대한 자료를 보조로 활용하고 있다. 다겐스 뉘헤테르 (www.dn.se)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분석을 통해 정당별로 의원들의 발의

내용을 분석해 어느 정당의 의원들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2010년 선거가 있기 전까지 제공했다. 애석하게도 지금은 폐쇄되었지만 2006년과 2010년 사이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이 연구분석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스웨덴의 의회자료와 다겐스뉘헤테르 자료를 취합해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활동패턴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분석에 앞서 스웨덴의 정당 제도를 서술하고, 이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한 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 어떤 연구가 경험적으로 필요할 지에 대한 논의 후 글을 마치기로 한다.

3. 스웨덴의 정당 제도

스웨덴 정당 제도는 1900년대 초 노동과 자본,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분화구조 속에서 정당들이 발전되어 왔다. 페테르손에 따르면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좌와 우,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경쟁구조 속에서 5개 정당 제도가 일찌감치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Petersson 2009: 225-227쪽). 즉 노동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좌익계열의 정당으로 사민당이 설립된 후 1917년 분화되어 공산당 (지금의 좌익당)이 설립되었고, 왕권 및 자본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 상공인의 자유무역과 시민계급의 정치적 참여에 기여한 자유계열 정당인 자유당, 그리고 도시의 기득권 계층 및 노동자들과 대척점을 이루면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한 농민당 이렇게 5개의 정당이 1908년 도입된 비례대표가 적용되면서 다당제의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Petersson 2009: 226쪽; Larsson & Bäck 2008).

스웨덴 정당정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좌우블록의 사상적 분화 (ideological cleavage)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민당을 정점으로 하는 좌익계열 정당들은 한번도 공동으로 연립정권을 수립한 경험은 없지만 의회 내에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의회주의를 실현해 왔고, 우익계열 정당들은 1976-1979, 1979-1982, 1991-1994, 2006-2010, 2010부터 현재까지 다섯번에 걸쳐 우익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등 좌우의 블록정치는 스웨덴 정

당정치의 특징을 이룬다(Hadenius 2003; Heidar 2004: 52-54쪽; Erlingsson, Håkansson, Johansson & Mattson 2005: 119-123). 이 같은 좌우의 블록정치는 스웨덴 정당정치의 특징으로 자리잡아왔다(Esaiasson & Holmberg 1996; Oscarsson & Holmberg 2004).

블록정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블록내에서의 정당 간 협조 뿐만이 아니라 블록의 경계를 허물며 이루어지는 협조관계도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스웨덴 의회정치와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내각은 민주정권으로서의 정통성(legitimacy)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수단독 정권의 경우 안정적 정국운영을 위해서는 정책공조가 필수이다. 사민당의 1951-1957 농민당과의 연립정권, 1990년대 경제 위기시 우익정당들과의 협조관계 구축, 1999년 연금 및 세계개혁 등 우익정당들과도 빅딜통해 소수내각의 한계를 극복하며 안정적 정국을 이끌어 왔다.

우익정당들의 경우 1991년 선거 패배 후 우익블록내의 정당들간에 이렇다 할 정책 공조를 하지 않다가 2006년 선거를 2년 앞둔 2004년 4개 정당의 당수들이 모여 정당연합체인 Alliance for Sweden 을 결성했다. 연합체의 성공을 위해 전략 정책분야를 공동으로 수립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선거전에 이미 유권자들에게 정권수립의 계획을 알림으로써 연립정권 수립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해 4개 정당들간의 전략투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Oscarsson & Holmberg 2008). 오스카르손과 홀름베리의 선거분석에 따르면 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정당을 옮기려고 할 때 여타 우익정당들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연립정권을 수립할 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4개 정당이 정당연합을 선언하지 않았을 때 정책이 유사하거나 더 마음에 드는 좌익계열의 정당에 투표를 할 경우, 행사된 한 표는 바로 좌익계열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선거 후 우익정당의 연립정권 수립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한다는 점에서 선거전 연합전략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2006년 스웨덴 의회 릭스다그(Riksdag)에 진출한 정당한 정당은 7개의 정당에 이른다. 4년마다 9월 3째 주 일요일에 치러지는 2006년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차지한 사민당은 득표율이 34.99퍼센트에 이르고 의석수에 있어서도 349석 중 130석을 차지하고 했다. 사민당의 경우 1915년 선거 이후 한 번도 최대의회 정당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우익정당

으로 제2 정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의 총득표율은 26.22퍼센트로, 의회에서 97석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5개 정당들은 10% 미만의 군소정당들로 우파계열정당들로 중앙당, 국민당, 기독교민주당이 있으며, 좌파계열정당들로 좌익당과 녹색환경당이 있다. 스웨덴의 정당 제도가 사민당과 보수당의 정당지지율은 57퍼센트를 점하고 있지만 나머지 5개 정당들은 10퍼센트 미만의 군소정당들이기 때문에 2006년 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한 정당수가 총7개 정당임에도 양당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표 1. 스웨덴 원내정당들의 선거득표율과 의석수 (2006-2010)

정당계열	좌익계열정당			우익계열정당				7개정당
	사민당 (s)	좌익당 (v)	녹색환경당 (mp)	중앙당 (c)	국민당 (fp)	기독교민주당 (kd)	보수당 (m)	
정당득표율	34.99	5.85	5.24	7.88	7.54	6.59	26.22	100
의석수	130	22	19	29	28	24	97	349석
합계	171 (48.99%)			178 (51.59%)				349 (100%)

출처: www.val.se

참조: 각 정당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사민당: Socialdemokraterna; 좌익당: Vänsterpartiet; 녹색환경당: Miljöpartiet det gröna; 중앙당: Centerpartiet; 국민당: Folkpartiet Liberalerna; 기독교민주당: Kristdemokratiska partiet; 보수당: Moderaterna

2006년 선거의 결과 우익 4개 정당들이 공동으로 51.59퍼센트의 지지율을 얻어 과반수를 획득해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정부 내 최대정당인 보수당에게 수상직이 할당되고, 각 정당당수들도 내각에 참여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좌익계열은 근소한 차이로 우익에게 정권을 잃었으며, 사민당의 경우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정권을 우익정당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사민당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차 대전 이후 1951-1957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소수단독정권을 수립해 왔다 (Hadenius 2003; Petersson 2009; Larsson & Bäck 2008). 우파정당들의 경우 1976년과 1979년 3개 정당, 즉 보수당, 중앙당, 그리고 국민당이 연립정권을 설립한 경험이 있었고, 1991년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 위에서 열거한 3개 정당과 기독교민주당이 함께 연립정권을 수립하기도 했다. 2006년

의 선거 이후 4개 정당이 연립정권을 수립한 것은 1991년 이후 두 번째에 속하며, 12년 만에 사민당의 소수 단독정권에서 다수연립정권으로 이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연구가설

가설 1: 야당의 위치에 있는 정당들은 정부여당의 적절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단수 혹은 복수의 정당들이 상대적 (혹은 절대적) 다수의 지위를 얻어 정부를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여당(들)에 대한 야당들의 효과적 견제수단으로 정책의 차별성을 사용하기도 한다(Bækgaard & Jensen 2012:131; Adams et al 2004; Iversen 1994). 즉 다양한 정책의 차별성을 통해 정부와의 차이를 강조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차기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사리아손과 홀름베리가 주장하는 ‘일하는 말’과 ‘보여주는 말’의 이미지를 야당의원 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안 등과 같은 의정활동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Esaiasson & Holmberg 1996:280쪽). 따라서 이 가설은 야당의 지위에 속하는 정당들은 정부를 견제하고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여당들보다 더 높은 정책입안율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스웨덴의 정치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6년과 2010년 사이에는 7개 정당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4개 정당인 보수당, 국민당, 중앙당, 기독교민주당은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고, 좌익계열 3개 정당인 사민당, 좌익당, 녹색환경당은 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좌익계열 정당인 좌익당의 경우 의회회기 기간인 4년 동안 265,7개의 법안을 제출했고, 이는 1년 회기기간 중 평균 66,4개의 법안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좌익계열정당인 환경당의 경우도 총 203,6개를 기록하고 1년 평균 50,9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좌익계열 최대정당인 사민당의 경우 총 132,1개를 기록하고 1년 평균 33개를 제출했다. 정부여당인 4개 우익계열 정당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한 정당은 국민당으로 66,3개를 제

출했다. 이어 중앙당, 기독교민주당, 그리고 우익정당 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어 수상을 배출하고 있는 보수당의 경우 50,5개의 법안을 제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원내정당 중 가장 많은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는 좌익당에 비해 무려 215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의원의 정당소속에 따른 4년 임기 중 법안제출수 (2006-2010)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	중앙당	국민당	기독교민주당	보수당	평균
4년 합계	132,1	265,7	203,6	55,6	66,3	53,4	50,5	119,8
좌우계열별 4년 평균	200,5			56,5				L-R: 144
1년 평균	33,0	66,4	50,9	13,9	16,6	13,4	12,6	29,5
좌우계열별 1년 평균	50,1			14,1				L-R: 36,0

출처: 스웨덴 의회 사무처 데이터베이스 (www.riksdagen.se) 및 다겐스 뉴헤테르 정치인 자료집 (www.dagensnyheter.se).

참조: L-R은 좌익계열 3개 정당이 제출한 평균법안수와 우익 4개 정당들의 평균 법안수의 차이를 나타낸다.

좌익계열 3개 정당들이 4년 임기 중 제출한 법안은 평균 200,5개로 여당4개 정당, 즉, 중앙당, 국민당, 기독교민주당이 제출한 평균법안수 56,6보다 144개나 더 많이 제출하고 있다. 이를 1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좌익계열 3개 정당 평균치 50,1에 비해 우익 4개 정당이 기록하고 있는 14,1보다 36개가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야당 정당들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더 많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가설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판단하는데 더욱 설득력을 더해 주는 것으로 표3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대법안제출자들의 소속정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각 정당들의 최대법안제출의원의 비교해 주는 표3에서 보이듯이,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좌익당 의원의 경우 4년 임기 중 437개, 다음으로 환경당 의원의 경우 422개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의회의 최대정당이자 가장 큰 야당 인 사민당 소속의원도 387개의 법안을 발표해 1년평균 96,8개를 차지하고 있다.

여당 4개 정당의 경우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당으로 158개를 제출했고, 가장 낮은 중앙당의 경우 111개를 제출했다. 이는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한 좌익당 의원과 비교해 볼 때 326개의 차이를 보여준다. 1년 평균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도 81.5를 기록하고 있다.

1년 회기가 휴가기간인 7월과 8월을 제외한 10개월이기 때문에 총 300일을 의회회기일수 기준으로 볼 때 좌익당의 의원이 제출한 109,3개의 법안은 결국 3일에 하나씩 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 정책의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꾸준히 정책연구를 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3일에 하나씩 제출하기 위해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연구에 몰두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야당3개 정당 모두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만큼 정책생산성으로 측정해 보는 정치생산성이 야당의원들이 여당의원들보다 매우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3. 정당별 최고 의원법안 제출수 및 제출의원의 성별구분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	중앙당	국민당	기독교민주당	보수당	
4년 임기중 법안수	387	437	422	111	158	121	157	최대치-최소치 = 326
1년 평균 법안수	96.8	109.3	105.50	27.8	39.5	30.3	39.3	최대치-최소치 = 81.5
성구분	여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여성	남성	
연령 (2010년 기준)	54	64	60	66	53	58	55	평균 58.6세

출처: 스웨덴 의회 사무처 데이터베이스 (www.riksdagen.se) 및 다겐스 뉴헤테르 정치인 자료집 (www.dagensnyheter.se). 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정당별, 성별로 구분해 분류함.

표2와 3에서 최대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소속 정당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야당정당들이 여당에 비해 더 적극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가설은 높은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여당의 경우 정부입법안이라는 정책수단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경우 여당의 정치장악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회법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설명력을 얻고 있다.

가설 2: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권력의 확대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이 의원입법 활동에 있어서 더욱 활발할 것이다.

“여성정치인은 과연 남성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태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소극적 정치행태를 보일 것인가?” 앵스타인은 여성과 남성의 권력에 대한 시각과 정치행태에는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지만 차이를 너무 부각시키기 때문에 달라 보인다고 지적한다(Epstein 1984: 240쪽). 즉 본질적으로 정치인들 간의 정치활동에 있어 유의적 성별차이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차페츠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든 행동이나 생각이 소극적인데, 이는 남성의 지배적 사회구조가 여성의 불평등성을 가중시켜 행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남성의 지배적 사회구조와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성의 사회활동이 남성들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Chafetz 1988: 220). 결국 차페츠는 여성정치인은 남성정치인에 비해 정치활동이 소극적일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아넬로와 무어의 연구에서는 여성정치인들은 소수자 입장에서 남성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야하고 성공하기 위해 남성을 능가하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Vianello & Moore 2000). 즉 여성정치인들이 모든 면에서 남성정치인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정치경력과 교육경력 등이 화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정치인이 남성이 지배하는 정치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상호 다른 결론의 제시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우선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정치인들의 성별 분포를 보자. 위의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7개 정당 중 환경당과 보수당을 제하고 모두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좌익계열의

야당인 좌익당, 사민당이 모두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 우익정당들의 경우도 우익계열 최대 정당인 보수당을 제외한 3개정당이 모두 여성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4년 임기기간동안 200개 이상의 입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을 비교해 보자. 200개 이상은 전체 의원 평균치인 119개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수치로 의정활동이 매우 활발한 의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의 비교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사민당의 경우 15명이 20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의 비율은 80퍼센트인 12명에 이르고, 좌익당의 경우 전체 18명 중 61.1퍼센트에 해당하는 11명이 200개 이상의 입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환경당의 경우만 예외인데, 남성의원들이 여성의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3개 정당을 합한 40명 중 여성의원의 법안제출수는 25개에 이르러 6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의 37.5퍼센트에 비하면 무려 25퍼센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여성의원들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에 비해 의원활동율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2는 스웨덴 정치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의 여성정치인이 남성 동료들에 비해 훨씬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레나 뱅네루드(Lena Wängnerud)는 앤 필립스 (Anne Phillips 1995)의 가설인 '여성의 이익은 여성이 가장 잘 대변할 것이다'를 스웨덴 의회에 적용해 본 연구에서 여성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사회에서의 여성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족정책, 아동정책, 학교정책에 대한 관심 등이 여성의원들이 남성들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Wängnerud 2000 & 2009). UNDP가 평가하는 성평등지수인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과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GGG(Global Gender Gap)가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스웨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함께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높다는 점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표4. 200개 이상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정당별 및 성별구분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	합계
여성	12	11	2	25
남성	3	7	5	15
합계	15	18	7	40
여성비율	80.0%	61.1%	28.6%	62.5%
200개 이상 발의한 의원들의 원내의석수 대비 비율	14.6%	81.8%	36.8%	14.6%

출처: 스웨덴 의회 사무처 데이터베이스 (www.riksdagen.se) 및 다겐스 뉴헤테르 정치인 자료집 (www.dagensnyheter.se).

가설 3: 정치경력이 길수록 의원의 의정활동은 높을 것이며, 가장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50대 전후의 나이에 가장 의정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이 가설은 정치활동의 야망은 40대와 50대를 이르러 최고점에 이르고 이후 급격히 하강할 것이라는 쉐레징거 (Joseph A. Schlesinger 1966)에 의해 주장되고 헤인 (Paul L. Hain 1974)에 의해 검증된 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쉐레징거는 정치인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활동은 가장 활발한 나이가 50대에 클라이막스를 이르고 다시 하강곡선을 이루는 정치적 주기 (Political cycle)이 있다고 주장한다. 헤인은 경험적으로 정치적 야망과 나이와의 관계를 측정해 보았는데, 정치의 가장 황금기는 50대라는 주장이다. 정치초년병 시기에는 의회의 복잡한 절차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이해도나 정책발의를 위한 학습시간 등에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치 초년병 시절인 30-40대까지의 시기에는 정치에 입문해 의회정치의 과정을 배우는 수습기간이라고 한다면 50대에 접어들면서 정치의 경륜과 경험이 쌓이면서 정치활동은 가장 활발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분석을 위해 추출한 의원들의 활동자료는 우선 150개 이상의 법안을 4년 임기기간동안에 제출한 의원의 입법 활동을 분석해 보았다. 4년 임기기간동안 15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매년 37개 정도 제출해야 하고, 회기를 10개월 3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8일에 하나씩 제출

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도서관 자료수집부터 의안초안 작성, 법안의로서의 법적근거 검토, 의안작성 등 구상에서 제출까지 8일 동안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50개 이상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원보좌관이 한명도 없는 스웨덴 국회의원의 경우 숙련된 정치인에게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아래의 표는 각 당에서 150개 이상의 입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을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해 본 것이다. 사민당의원들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가장 활발한 법안활동을 하는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49퍼센트까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40대로 2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40대와 50대를 합친 비율은 70퍼센트까지 올라가 야당의 지위에 있는 사민당의 의원 중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통해 여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40대에서 50대까지 걸쳐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60대 들어서는 다시 비율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정치적 경륜은 높으나 일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이고, 건강상의 이유도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비율은 30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15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50대에 들어 적어도 3선 이상의 중견 정치인이 정치적 경륜과 지식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50개 이상의 법안과 나이의 비교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위에서 검토해본 스웨덴 여성의원의 의원입법활동의 상대적 우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50개 이상의 법안의 제출한 50대 의원 23명 중 15명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의 입법 활동은 같은 당 남성의원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민당에서 발견된 의원법안의 제출건수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는 좌익당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사민당과 좌익당과의 차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사민당 때보다 50대 의원들의 집중도가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좌익당의 경우 50대 의원 들이 61.9퍼센트의 비중으로 모든 연령대를 능가하고 있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도 50대 전체 13명 중 8명이 여성의원으로 남성의원보다도 더 많은 정책입안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 의원비율이 가장 높은 녹색환경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50대 정치인의 정책입안 비율이 전체의 57.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성의원과 여성간의 차이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앞서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환경당 의원들의 경우 남성의원 들이 가장 많은 의원입법안을 제출하고 최고 제출자들이 모두

남성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정당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4개 우익정당 들 중 150개 이상의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의원 수는 보수당 및 국민당이 각각 한명 씩 모두 2명에 불과하며 연령대도 모두 50대의 원이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도 남성의원과 여성의원이 균등하게 분점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40대까지 정치적 경험을 쌓고 50대 들어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인 경륜과 경험,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치적 절차에 대한 학습, 그리고 자료수집부터 작성까지 필요한 노하우, 그리고 정책의 이해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력이 갖춰져야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50대에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가설은 모든 정당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연구 가설로서의 유용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표5. 150개 이상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정당별 및 연령별 구분

사민당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비율
-29	0	0	0	0%
30-39	2	4	6	12.76%
40-49	6	4	10	21.27%
50-59	8	15	23	48.93%
60+	3	5	8	17.02%
합계	19	28	47	99.98%

좌익당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비율
-29	0	0	0	0%
30-39	1	1	2	9.52%
40-49	1	2	3	14.28%
50-59	5	8	13	61.90%
60+	1	2	3	14.28%
합계	8	13	21	99.98%

녹색 환경당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비율
-29	0	0	0	0%
30-39	1	1	2	14.28%
40-49	3	1	4	28.57%
50-59	4	4	8	57.14%
60+	0	0	0	0%
합계	8	6	14	99.99%

4개 우익계열정당

	남성의원	여성의원	합계	비율
-29	0	0	0	
30-39	0	0	0	
40-49	0	0	0	
50-59	1 (보수당)	1 (국민당)	2	100%
60+	0	0	0	
합계	1	1	2	

출처: 스웨덴 의회 사무처 데이터베이스 (www.riksdagen.se) 및 다겐스 뉴헤테르 정치인 자료집 (www.dagensnyheter.se).

5. 토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한 국가의 정치적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당의 주된 역할이 국민의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이듯이, 정치인들의 주된 역할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입안활동에 있다고 볼 때, 역사가 길고 뿌리가 깊게 내린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정책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본적 기대를 내포하며 민주주의 경험이 적은 국가일수록 정책정당화, 활발한 의원입법활동 등은 민주주의 정착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과 2010년의 4년 임기기간동안 스웨덴 정치인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정책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위해 의회의 데이터베이스와 다겐스 뉴헤테르의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정당 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웨덴은 7개정당의 다당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민당과 보수당의 양당체제화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6

년 선거에서는 우익4개 정당, 즉 보수당, 국민당, 중앙당, 그리고 기독교민주당이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3개 좌익정당들이 야당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가설의 유용성을 측정해 보았다. 첫째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고 경쟁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가설에 있어서는 스웨덴의 3개 야당인 사민당, 좌익당, 그리고 환경당이 4개 여당보수연합정당들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법안제출율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활발한 좌익당의 경우 좌익당 전 의원의 81.8퍼센트가 20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해 가장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가설인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매우 유용성이 낮다. 스웨덴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이 높을 뿐 아니라, 여성의원 구성비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스웨덴의 여성의원 들은 남성의원들 보다도 높은 입법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첫 번째 가설과도 연계해 볼 때 야당의 여성의원들이 여당의 여성의원들 보다도 입법제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4년 임기동안 200개 이상의 법률안을 제출한 의원들에 있어서도 여성의원들의 활동이 눈에 두드러진다. 따라서 여성의 입법활동은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복지에 관심과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의정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만드는 주 요인이라고 뵙네루드 연구 (Wängnerud 2000 & 2009) 는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가설인 정치적 성숙도와 연관된 의정활동에서 50대에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는 인식은 매우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 내에서의 정치는 많은 절차, 규칙, 그리고 법을 이해해야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의정활동이 무르익어야 정책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치학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바로 의정활동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선을 거쳐 재선, 삼선 의원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40대와 50대에 가장 정치활동이 몰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이 10대부터 정당에 가입해 어릴 때부터 정치에 잔뼈가 굵는다고 해도, 지방정치부터 입문해 중앙정치에서 어느 정도 견습기간을 거치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시기는 30대 후반부터 40대, 그리고 50대에 이르러 최고점에 다다른다. 모든 정당소속 의원들이 50대에 이르러 가장 높은 입법제

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흥민주주의 국가에서는 60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인 60대에 들어서면 스웨덴에서는 정치에서 서서히 은퇴할 나이에 속하고 정치활동도 현저하게 줄어든다. 스칸디나비아 정치의 특징으로 60대 이후의 정치인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점도 현저하게 60대 정치인들이 정치적 활동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스웨덴의 원내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어떤 특징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정당소속, 성별, 그리고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가 설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각 원내 정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단독법안인지, 공동법안인지 구분이 되고 있지 않다. 단독법안의 경우 의원 개인이 준비해 발의를 하지만, 공동법안일 경우 능동적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올렸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원 개개인들의 활동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개인단독 발의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던지, 공동발의의 경우 개인발의의 0.5 정도의 가중치를 두어 약간 비중을 낮추든지 하는 방식으로 보다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야당의 역할은 분명 정부의 견제와 정책경쟁에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법안을 많이 발표했다고 해도 일부 의원은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을 더 많이 제출한 반면, 일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논의만 하고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채택된 법안이 채택되지 않은 법안보다도 더 중요한 법안인지 아니면, 차이가 없이 모두 중요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의원별로 채택율 등의 수치를 비교해서 양적으로는 많지만 채택율에서 낮게 나타난 의원의 활동 비중을 좀 더 낮추는 등의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법안제출만이 아니라, 대정부 질문(Interpellation) 및 서면질의(Skriftliga frågor),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견제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의원들의 법안제출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 대정부질문 및 서면질의, 및 상의활동 등까지 함께 연구해야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의원활동의 면모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더욱 이 연구가 앞으로 보완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이 연구는 스웨덴의 단 한 번에 걸친 4년 임기기간 동안의 의원

들의 입법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야당의 여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경쟁이라는 가설이 과연 보다 긴 연구대상 기간에서도 발견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또한 이것이 과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만의 특징인지, 같은 의원내각제라고 하더라도 양당제와 다당제 등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간에는 차이가 발견되는지,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도 유효한지는 보다 비교적 관점에서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방법론의 두 가지 문제 즉, 내재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와 외재적 타당성 (External validity)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이 연구의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이 연구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스웨덴 의정활동의 특징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앞으로 정치적 생산성의 산출을 위한 비교연구에 중요한 단서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Adams, J., Bishing, B. G. and Dow, J.K. 2004. 'Representation in congressional campaigns: Evidence for discounting/directional voting in US Senate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71 (2), 1-15.
- Arter, David. 2006. *Democracy in Scandinavia. Consensual, majoritarian or mix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æck, Martin & Jensen, Carsten. 2012. 'The dynamics of competitor party behaviour', *Political Studies* 2012 Vol. 60, 131-146.
- Brothén, M. 1997. 'Svenska EU-parlamentarikers representativitet'(스웨덴 유럽의회의원의 대의성), Mattson, I. and Wängnerud, L. (eds.) *Riksdagen på när håll* (가까이서 본 의회). Stockholm: SNS.
- Choe, Yonhyok. *Valsystem och den representativa demokratin (Electoral System and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Lund: Liber, 2003.
- Donohue, Ross & Holland, Peter. 2012. 'Buidling parliamentary human capital', *Parliamentary Affairs* 65, 529-540.
- Esaiasson, Peter & Holmberg, Sören. 1996. *Representation from Above. Members of parliament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in Sweden*. London: Dartmouth.
- Hadenius, Stig. *Modern svensk politisk historia* (스웨덴의 현대정치사). Stockholm: Hjalmarson & Högberg.
- Hain, Paul L. 1974. 'Age, ambitions, and political careers: The middle-age crisi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27, No. 2, 265-274.
- Höijer, Birgitta. 2011. 'Social Representations Theory: A New Theory for Media Research', *Nordicom Review* 32 (2011) 2, 3-16.
- Iversen, T. 1994. 'Political leadership and representation in West European democracies: A test of three models of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1), 45-74.

- Keman, Hans. 2002. *Comparative Democratic Politics*. London: Sage.
- Larsson, Torbjörn & Bäck, Henry. *Governing and governance in Sweden*. Lund: Studentlitteratur.
- Layard, Richard. 2006.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Press.
- Lindvall, Johannes & Rothstein, Bo. 2010. *Vägar till välstånd. Sambandet mellan demokrati och marknadsekonomi* (번영을 향한 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의 상관관계). Stockholm: SNS Förlag.
- Moscovici, Serge. 1988. 'Notes Towards a Description of Social Repres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211-250.
- North, Douglas. 2007. *Institutionerna, tillväxten och välståndet* (제도, 성장 그리고 번영). Stockholm: SNS Förlag.
- Oscarsson, Henrik & Holmberg, Sören. 2008. *Regeringsskifte : väljarna och valet 2006*(Government Shift: voters and the 2006 election). Stockholm: Collins Juridik.
- Petersson, Olof. 2010. *Den offentliga makten* (행정권력). *Tredje upplagan*. 제3판. Stockholm: SNS Förlag.
- Phillips, Anne. 1995. *The Politics of Pres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alfeld, Thomas. 2000. 'Members of parliament and governments in Western Europe: Agency relations and problems of oversigh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7: 353-376.
- Schlesinger, Joseph. A. 1966. *Ambitions and Politics: Political careers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Rand MacNally.
- Strøm, Kaare, Müller, Wolfgang & Smith, Daniel Markham. 2010. 'Parliamentary controls of coalition government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10. 13:517-535.
- Westerståhl, J. and Johansson, F. 1981. 'Medborgarna och kommunen: Studier av medborgerlig aktivitet och representativ folkstyrelse' (시민과 지방정치: 시민의 활동과 대의적 통치에 대한 연구).

Stockholm.

Wängnerud, Lena. 2000. 'Testing politics of presence: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Swedish Riksdag',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 23, No.1, 67-91.

Wängnerud, Lena. 2009. *Kvinnorepresentation: Makt och möjligheter i Sveriges riksdag* (Women Presentation: Power and possibilities of the Swedish Parliament). Lund: Studentlitteratur.

부록. 정당별 그리고 단위별 의원법안 제출건수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	중앙당	국민당	기독교 민주 당	보수당	Total
0-49	9명 (38, 45, 48, 0, 31, 36, 35, 1, 25)			12명 (27, 14, 42, 42, 44, 41, 26, 15, 17, 33, 39, 28)	11명 (0, 24, 7, 42, 10, 23, 0, 40, 4, 42, 48)	13명 (0, 8, 34, 25, 42, 36, 35, 48, 29, 0, 43, 7, 21)	50명 (47, 17, 26, 38, 27, 30, 35, 33, 31, 28, 42, 17, 11, 42, 8, 44, 32, 38, 5, 33, 14, 42, 14, 15, 19, 42, 20, 0, 24, 1, 14, 42, 16, 41, 16, 49, 45, 6, 45, 45, 3, 47, 29, 39, 33, 0, 20, 23, 39, 12)	95명 총2501개 평균 26.3개
50-99	32명 (89, 67, 65, 91, 96, 87, 99, 91, 68, 91, 91, 84, 73, 57, 92, 92, 55, 90, 82, 98, 78, 91, 58, 50, 86, 97, 60, 70, 91, 83, 73, 65)	1명 (94)	3명 (69, 85, 51)	13명 (99, 87, 64, 62, 70, 51, 69, 50, 69, 68, 55, 60, 65)	10명 (86, 53, 80, 56, 68, 84, 57, 55, 64, 96)	7명 (91, 54, 57, 70, 54, 97, 88)	40명 (64, 99, 63, 58, 57, 65, 93, 85, 57, 50, 88, 63, 75, 63, 62, 57, 57, 93, 59, 62, 64, 56, 53, 91, 88, 55, 76, 73, 56, 62, 58, 57, 91, 63, 58, 78, 91, 60, 38, 44)	106명 총7620개 평균 71.9
100-149	42명 (100, 100, 135, 145, 109, 110, 109, 145, 130, 139, 141, 147, 144, 136, 146, 103, 119, 119, 123, 116,		2명 (121, 140)	3명 (108, 100, 111)	6명 (140, 137, 111, 134, 106, 130)	4명 (121, 112, 108, 101)	6명 (109, 116, 118, 136, 102, 139)	63명 총7665개 평균 121.7

	107, 141, 107, 105, 137, 149, 112, 113, 120, 115, 113, 121, 123, 126, 107, 120, 122, 131, 135, 102, 131, 121)						
150- 199	28명 (170, 198, 164, 158, 155, 153, 199, 175, 162, 183, 189, 181, 163, 171, 181, 151, 161, 181, 162, 159, 174, 191, 193, 180, 152, 169, 161, 156)	2명 (188, 183)	5명 (194, 158, 177, 156, 162)		1명 (158)		1명 (157) 37명 총6325개 평균 170.9
200- 249	16명 (200, 221, 229, 204, 222, 237, 211, 208, 207, 207, 212, 221, 231, 230, 210, 229)	6명 (219, 223, 209, 231, 247, 236)	3명 (208, 226, 236)				25명 총5515개 평균 220.6
250- 299	2명 (264, 264)	7명 (256, 251, 279, 298, 268, 258, 267)	4명 (282, 282, 251, 256)				13명 총3476개 평균 267.4
300- 349		4명 (338, 325, 318, 321)					4명 총1302개 평균 325.5
350- 399	1명 (387)		1명 (393)				2명 총780개 평균 390

400-		2명 (437, 400)	1명 (422)					3명 총1259개 평균 419.7
Total	129	22	19	28	28	24	97	347 총36443개 평균 104.7

출처: 스웨덴 의회 사무처 데이터베이스 (www.riksdagen.se) 및 다겐스 뉴헤테르 정치인 자료집 (www.dagensnyheter.se) 2010년까지 웹자료로 제공.

참조: 스웨덴의원 수는 345명이나 2인의 추가 인원은 의원이 결원사유가 생기면 순서에 따라 결원을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study of parliamentarian behavioral patterns: Sweden as a case

Choe yonhyok

(Professor,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Hanzho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roader understanding of patterns of parliamentarian behaviors. Active role of parliamentarians by introducing bills, questioning to ministers, and attending interpellation in an orderly way seems to be a crucial element in producing high political effectiveness. However, our knowledge of salience of parliamentarian behavior is confined for the lack of empirical evidences. This study is to reduce this gap. This study delves into behavioral patterns of the Swedish parliamentary members representing 7 political parties - four ruling coalition parties and three opposition parties - as a case study based on two different sources, i.e. the Swedish Riksdag and DN databases. This study tests three hypotheses: 1) Opposition party members seem likely to introduce more bills in the parliament to compete effectively with ruling parties in government position; 2) Female parliamentarians are less eager to introduce bills in comparison to their male parliamentarian colleagues for their relative low interest in political power; and 3) At the age of their fifties, politicians will be most active in their parliamentary activities. Hypotheses 1 and 3 should

be convincingly accepted, while Hypothesis 2 does not seem to be true. Despite several drawbacks in terms of lack of methodological requirements, these findings seem to be of great importance and meaning for measuring political effectiveness and productivity necessary for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alization.

key word: parliamentarian behavior, political effectiveness, bills, Sweden, gender gap, age, opposition party, party system

성명: 최연혁(Choe yonhyok)

소속: 쇠테르틴대학 정치학과

주소: Box 4101, 141 04 Huddinge, Sweden

전화: +46-70-4411971

E-mail: yonhyok.choe@sh.se

논문접수일 2012년 8월 10일

논문심사일 2012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5일